

교 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교보

· 발행인: 총무원장 김 덕 환
 · 편집주간: 부총무원장 박 신 규
 · 발행처: 수운교본부
 · 발행소: 34059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245번길 80(추목동)
 · 창간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화 / 팩스: (042)861-1771·862-9436/862-1772
 · 인쇄처: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 홈페이지: http://www.suwoongyo.or.kr

개교 제95주년 기념 봉축법회 (음 10월15일 오전 10시)



수운강생 197 (2018)년 11월 22일 (음력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도솔천에서 수운교 개교 제95주년 기념 봉축법회를 봉행하였다.

수운교는 수운강생 102(1923)년 음력 10월 15일에 수운천사 출룡자께서 서울에서 수운교를 개교하고 108(1929)년 4월 15일에 도솔천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금병산하에 건립하였다.



· 봉축법회에는 많은 교인 동덕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솔천과 각 지부 천법당에서 차분하고 경건하게 기념법회를 봉행하였다. 법회는 김옥현 부법사원장의 사회와 이태화 경위사, 최재봉 법사, 문제현 정필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수운교는 불천심 일원(佛天心 一圓)의 무극대도(無極大道)로서 유불선(儒佛仙) 합일의 천도이다.

수삼정기로 수련 수도하여 태극성(太極性)을 깨달아 성경신(誠敬信)으로 사인여천(事人如天)하며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三大願)을 성취하여 만화귀일(萬化歸一)로 세계일가(世界一家) 동락(同樂)하는 도덕세계의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룩하는 진리로 수운교를 개교하여 오늘로 제 95주년을 맞는 날이다.

개교 기념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공을기를 손에 들고 개교의 참뜻을 가슴에 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법회를 봉행하였다.

김덕환 총무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수운천사님께서 말씀하여 이르기길 사인여천의 실천으로 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와 생존변영의 길이 사인여천에 있음으로 사인여천의 실천을 신앙심의 주체로 삼아야 합니다.

섬기는 마음이 한결같고 섬김의 말은 늘 진실하여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때 우리의 영원인 삼대원은 자연히 성취될 것입니다.”라고 설법하였다.



봉령각 아미타불 개금불사



봉령각은 지난 194년(2015)년 유성구청에서 문화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보수 공사를 위해 아미타불 부처님과 양위 선생님을 잠시 법회당으로 모셨다 그리고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다시 아미타불 부처님과 양위 선생님을 봉령각으로

이운하였다.

봉령각에 익명으로 칠백만원을 보시하는 등 봉령각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개금불사를 염원하는 뜻있는 교인들이 있어 지난 11월 6일 교무회의에서 개금불사를 봉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봉령각 아미타불 부처님에게 금 옷을 입혀드리는 개금불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불천사(佛天師)의 가호지 원력으로 뜻하신 모든 염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동참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 래

1. 점 안 일 197(2018)년 12월 30일 오전 10시
2. 접 수 처 본부 사무실에서 12월 28일까지 동참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3. 문의사항 수운교 본부 사무실 042)861-1771, 862-9436
4. 계좌번호 재단법인 수운교 453116-51-010348(농협) 9002-1796-7840-6(새마을 금고)

개교 제95주년 기념 봉축사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천사님께서 대도의 진리를 펴기 위해서
교단을 세운지 9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개교기념일을 맞이해서 공사다망하
심에도 불구하고 도솔천 봉축법회에 왕림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교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각 지부에 참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천사(佛天師)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
시길 기원합니다.

천사님께서서는 경술년(1910) 국운이 기울어 일
본의 식민지가 되는 국난을 겪게 되자 임자년(1912)에 칠용산(칠갑산) 하 안골
에 초가옥을 지으시어 도성암이라 암호하고 칠용산 9년 기도를 마치신 후 경신
년(1920년) 도성암을 떠나 하산 출세하신 후 임술 계해(1922~23)양년에 걸쳐
서북 지방을 두루 포덕하시니 신도수가 수 만 명에 이르러 계해년(1923) 10월
15일 개교하여 하늘님의 자비강명(慈悲降命)으로 무극대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개교 95주년의 지나온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삼대에 걸쳐 흘러온 세월이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삼대에 걸쳐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의 뿌리는 믿음과 수련수도입니다.

신앙심의 쇠약함 도력의 부족은 나무뿌리에 병이든 것처럼 고사할 수도 있
습니다.

과거시절 그토록 박해받고 탄압받던 운둔과 은도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우리 교단에 몰려들고 의지했던 원동력은 선배 동덕님들의 깊은 신
앙심과 수련수도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길 “사인여천의 실천으로 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고 하셨습니다.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민족의 통일과 인류
의 평화와 생존번영의 길이 사인여천에 있음으로 “사인여천의 실천을 신앙심
의 주체”로 삼아야 합니다.

섬기는 마음이 한결같고 섬김의 말은 늘 진실하여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뢰
와 존경을 받을 때 우리의 염원인 삼대원은 자연히 성취될 것입니다.

칠혹 같은 어둠이 있어도 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 사인여천의 실천을
통해 천심을 잃고 각자위심하여 극단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사람들의
어둠 속에 빛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개교 기념행사에 만전을 다해주신 임직원과 교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언
제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속히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강 197년(무술) 10월 15일

총무원장 윤호 김 덕 환 합장

합동 위령재(慰靈齋)



11월 23일(음 10월 16일) 군
경 및 순국선열과 선망 부모
조상님에 대한 합동 위령재(慰
靈齋)를 수운교 본부 법회당에
서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영가님들의 왕생극락과 동
참자들의 가내평안을 기원하
는 집례 법사로는 본부 법회당

김승천 정위사, 도솔천 이태화 경위사, 봉령각 오영순 정위사, 문계현 정필사,
이유정 정필사, 육지 김구한 청라지부장, 이장성 법사, 제주 양원홍 감무원장,
김영호 의전부장, 김현철 구업 정위사 등이 집례자로 선정되어 봉행하였다.

이날 위령재는 본부와 지부의 법사님들의 집례로 장엄한 법구소리에 장단을
맞추어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궁을 바라를
추며 질서 정연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김덕환 총무원장, 김석주 법
사원장, 김상조 감리원장, 아
헌관에 정기종 이사장, 박남
형 신도회장, 김은택 부녀회
장, 종헌관에 양원홍 감무원
장, 김구한 청라지부장, 한동
원 봉령군대인, 등이 수운교
제관(祭官)으로 선정되어 헌
작하였다.



조국평화통일과 삼대원 성취발원 삼칠일기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
(21일간)까지 조국평화통일
과 삼대원 성취 특별 기도를
수운교 본부 봉령각 및 각 지
부 천법당에서 많은 교인 동
덕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
였다.

매년 조국평화통일과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 성취를 기원
하는 특별 기도를 봉령각에서 봉행하고 있다. 21일간의 기도를 마치며 오영
순 봉령각 정위사는 설법을 통해 “우리 수운교는 불천사(佛天師)님을 숭배
하고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하여 수심정기(守心正氣)로 마음을 지
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동학의 대도를 실천하는 민족종교입니다. 나의 아
집과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며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
야합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고봉(高峯)이 올림(屹立)은 군산통솔지상(群山
統率之像)이요 유수불식(流水不息)은 백천도회지의(百川都會之意)라 높은
봉우리가 우뚝 솟은 것은 모든 산을 통솔하는 기상이요, 흐르는 물이 쉬지
않은 것은 모든 내가 한데 모이고저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산하대운 진
귀차도 (山下大運盡歸此道)하여 만화귀일할 때도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우
리 모두 천사님의 성훈(聖訓)을 받들어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
대원(三大願) 성취로 모든 인류가 일가동락(一家同樂)하는 도덕세계의 지상
천국을 위해 수련기도에 정진합시다!” 라고 강조하였다.

眞色 眞色 眞禪 眞名
戊戌年 奉祝 水雲教開教九十五週年 松石居士

“진색 무색 진선 무명” 참된 색은 색이 없고 참된 선은 이름이 없다

애국지사 김병균(金炳均) 전 개성지부장 (1879. 1. 28 ~ 1933. 5. 26)

수운교 개성 지부장을 역임한 김병균 지사는 평안남도 중화군 상원면 내입암 리 37번지의 삼척 김 씨 집성촌에서 출생하였다. 동학에 뜻을 두고 천도교 중화교구장으로 교화에 힘쓰던 중 기미년(1919년) 3월 2일 중화군 상원면내에 거주하는 김동식, 이동흡, 김진영, 김병준, 김병택 등의 일가와 주민들이 합세하여 상원신읍(祥原新邑)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 군중과 함께 경찰주재소에서 주재소의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무력으로 해산하려하자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을 역습하여 총기와 탄약 등을 빼앗고 마침 순찰차 이곳에 와 있던 중화 경찰서장 고색국치와 순사부장 전춘 삼랑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우편국장의 긴급 타전을 받은 평양 경무부에서 보병과 경찰

병력을 급파하여 상황이 역전되고 총기와 탄약을 다시 뺏기고 강제 해산되었다. 그 후 지사께서는 일경의 일제 검속 때 긴급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그 해 7월 31일 평양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그 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 고향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가업을 버리고 개성으로 이주하여 어렵게 생활하던 중에 천사님의 재위출세 소식을 접하고 승안한 후에 개성지역에서 포교에 열성을 다하여 200여 호에 이르는 교인을 포덕하여 수운교 개성 지부장을 역임하였으나 일제의 잔혹한 고문 휴유증으로 55세로 세수를 다 하시어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33. 5. 26일 서거하셨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슬하에는 전 재무부장 김세영 등 3남매를 두셨으며 손자로는 현 총무원장 김덕환 원장 등 10명이 승계하여 성경신을 다하고 있다.

일도지부 개금불사 낙성식



제주 일도지부는 중건한 지 오래되어 천법당 건물이 노후하고 남아 화재 및 붕괴 위험이 있어 금년 6월 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부처님 개금 및 탱화도 함께 조성 하였다.

천법당 수리비 7,600만원, 객실공사 2,500만원, 개금 및 탱화 조성비 2,900만원 등 총 일억삼천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공사비 대부분을 일도지부의 교인 성금과 각 지부 및 본부 교인들의 회사성금으로 무사히 장엄한 완공을 보게 되어 지난 10월 7일 (음. 8. 28) 오전 10시 일도지부 천법당에서 문충식 지부장, 김덕환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각 지부장님과 정위사, 일반 교인 등 100여명이 법회를 참석하여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을 축원하였다.



신도회 산왕기도



11월 4일 일요일 신도회 주관으로 전라북도 장수 봉화산에서 120여 명의 교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산왕기도를 봉행 하였다.

이날 산왕기도는 버스 3대로 분승하여 오전 8시에 대전을 출발하여 11시 30분에 봉화산에 도착하였다. 봉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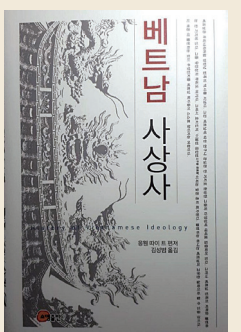
상상봉을 바라보며 천호자 김승천 정위사와 이태화 경위사 문제현 정필사 등의 집례로 산왕기도를 봉행하였다. 이날 박남형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도에 동참해주신 교인님들 무병장수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전 용담유사에 이르기를 人傑(인걸)은 地靈(지령)이라 勝地(승지)에 살아보세 明氣(명기)는 必有名山下(필유명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길일을 택하여 우리나라 명산을 찾아 산왕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뜻하신 일 소원성취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산왕기도를 마치고 봉화산을 등반하며 심신을 수련하였다.



〈베트남 사상사〉 소개



수운교 안덕지부 학선군대인 보호자 김성범 박사



베트남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다. 베트남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하지만 우리가 38도선으로 분단된 것처럼 베트남은 16도선으로 국토가 강제 분할되었다. 이후 반프랑스 독립투쟁을 지속적으

로 펼쳐 1954년에 마침내 프랑스를 물리쳤다. 하지만 다시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계속된 전쟁의 막바지인 1970년대 초 베트남 사회과학원 철학원을 주축으로 각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베트남 사상사를 정립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20여년 연구와 토론을 거치고 우여곡절 끝에 1993년 『Lịch Sử Tư Tưởng Việt Nam(베트남사상사)』(1집)을 출판할 수 있었다. 응웬 타이 트(Nguyễn Tài Thu) 교수가 주필과 편저자를 맡았다. “독자들은 오직 사상사와 역사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역사학자인 쩌 반 지아우(Trà Văn Giàu)교수의 『Lịch Sử Tư Tưởng Việt Nam(베트남사상사)』(1집)에 대한 평가다.

이 책은 고대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베트남 사상의 주요 흐름을 담고 있다. 김성범 박사가 번역하고 소명출판에서 출간한 『베트남사상사』는 이 책을 완역한 것이다. 그동안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관련 서적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사상사가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천 년 동안 하나의 나라를 지켜온 베트남의 민족공동체는 뛰어난 칼보다 그 칼을 쓰는 민중들의 사상적 단결을 원동력으로 중시했다. 우리도 반만년 나라를 이렇게 지켰다. 역사를 헤아려보면 경제와 국방도 중요하지만 민중들의 한마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동학을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사상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성범 박사는 베트남 사상을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한편 통일철학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다른 한편 새롭게 한국철학의 맥을 짚어 낼 한국사상사를 정리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사유의 흐름>이 푸른사상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고향 제주 섬을 떠나 금병산에서 공부를 시작한 그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동경대전해제>와 <한국사상사로의 초대>를 출판하며 한국의 동학과 수운사상에 대해 널리 포덕하고 있다.

김 박사는 제주도 안덕지부 김영호 지부장의 장남이다. 그의 조부님은 김안민으로 수운교 신앙심이 깊어 사인여천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 이웃에 귀감이 되는 등 조상 대대로 독실한 수운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집안이다.



경 전

[東經大全]

附(부). 降 書(강 서)

만물지생장혜 기호연 기호연 화옹지수장혜 자유시자유시
萬物之生長兮 其胡然 其胡然 化翁之收藏兮 自有時自有時
수지심원혜 한역부단 목지고근혜 한역불사
水之深源兮 旱亦不斷 木之固根兮 寒亦不死

만물이 나고 자람이여, 어찌 그러하고 어찌 그러한가. 조화
옹의 거두고 저장함이여, 스스로 때가 있고, 스스로 때가 있
도다. 물의 근원이 깊음이여, 가물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무의 뿌리가 견고함이여, 추위도 또한 죽지 아니하도다.

망량지출주혜 거하심거하심 칩중지처혈혜 역유지 역유지
魍魎之出晝兮 渠何心 渠河心 蟄蟲之處穴兮 亦有知 亦有知
고목지봉춘혜 시호시호 불상지견 성혜 성호 성호
枯木之逢春兮 時乎時乎 佛像之見 聖兮 誠乎 誠乎

망량이 낮에 나옴이여, 저 어떤 마음이며 어떤 마음인가.
칩중이 구멍속에 숨어 있음이여, 또한 얹이 있고 얹이 있도
다. 고목이 봄을 만남이여, 때로다 때로다. 부처님의 상을
봄이여, 성인이지어, 정성이로다. 정성이로다.

지지가 지지가 성심야 간교야 박잡야 지지가 지지가
知之也 知之也 誠心也 奸巧也 駁雜也 知之也 知之也
기재주인 가불신재 염자재자 이조상제 행심행심
其在主人 可不慎哉 念茲在茲 以助上帝 幸甚幸甚

알았도다. 알았도다. 정성스런 마음과 간교함과 박잡함은
알고 알았노라. 그 주인이 있으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라.
이에 생각함이 있어 하늘님을 도우니 매우 다행하고 다행
하리라.

애차세인지무지혜 고장조수이론지 계명이야분혜
哀此世人之無知兮 顧將鳥獸而論之 鷄鳴而夜兮
견폐이인귀 산저지쟁갈혜 창서이득소 제우지분연혜
犬吠而人歸 山猪之爭葛兮 倉鼠而得所 齊牛之奔燕兮
초호이림오 증산토지관성혜 패담룡지한수
楚虎而臨吳 中山兔之管城兮 沛潭龍之漢水
오사지무대혜 구마당로
五蛇之無代兮 九馬當路

슬프도다! 이 세상 사람의 무지함이여, 장차 새와 짐승을
돌아 보아 그것을 논하라. 닭이 울음에 밤이 나누어 짐이여,
개가 짖음에 사람들이 돌아가도다. 멧돼지가 칩을 다듬이
여, 창고의 쥐가 처소를 얻도다. 제나라 소가 연나라로 달아
남이여, 초나라 범이 오나라에 오도다. 증산의 토끼가 성을
관장함이여, 패택에 사는 용의 한수에 이르도다. 다섯 뱀의
대가 없음이여, 아홉 말이 길에 당하도다.

차호차호 명자암지변야 일지명혜인견 도지명혜독지
嗟乎嗟乎 明者暗之變也 日之明兮 人見 道之明兮 獨知
명자운지배야 천지명혜막치 인지명혜난위 덕자진성진경
命者運之配也 天之命兮 莫致 人之命兮 難違 德者盡誠盡敬

행오지도 인지소귀 덕지소재 도자보약적자 대자대비
行吾之道 人之所歸 德之所在 道者保若赤子 大慈大悲
수련성도 일이관지
修煉成道 一以貫之

놀랍고 놀랍도다! 밝은 것은 어둠의 변함이니, 해가 밝음
이여, 사람마다 볼 수 있고, 도의 밝음이여, 나 홀로 알도다.
명이란 것은 운을 짝함이니 하늘의 명은 다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명은 어기어 어렵도다. 덕이란 것은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여 나의 도를 행함이니 사람이 돌아갈 바는 덕
이 있는 곳이니라. 도란 것은 갖난 아기를 보호하듯 하고,
대자대비로 수련성도하여 하나로 꿰는 것이니라.

성자심지주사지체 수정사비성무성 경자도지주신지용
誠者心之主事之體 修正事非誠無成 敬者道之主身之用
수도행신유경종사 외자인지소계 천위신목무처부림
修道行身唯敬從事 畏者人之所戒 天威神目無處不臨
심자 허령지기 화복지원 공사지간 득실지도
心者 虛靈之器 禍福之源 公私之間 得失之道
개만고지조화혜 무극이무궁
蓋萬古之造化兮 無極而無窮

정성이란 것은 마음의 주인이요, 일의 체가 되니 수십정기
와 일에는 정성이 아니면 이를 수 없느니라. 공경이란 것은
도의 주인이요, 몸의 쓰이니 도를 닦고 몸으로 행함에 오직
공경으로 종사하라. 두려움이란 것은 사람이 경계하는 바
니 하늘의 위엄과 신의 눈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도다.
마음이란 허령의 그릇이요, 화와 복의 근원이니, 공과 사
사이에 얻음과 잃음의 도가 있느니라. 대개 만고의 조화여,
무극하고 무궁하도다.

희 차세지오도혜 유회유창 경신지포덕혜 개비운 개비명
噫 此世之吾道兮 有晦有彰 庚申之布德兮 豈非運 豈非命
갑자지소당혜 역시운 역시명 주인지일심혜 유초이극종
甲子之所當兮 亦是運 亦是命 主人之一心兮 有初易克終
이자지견당지혜 내양인지선행 대운지장태혜
二字之見當指兮 奈洋人之先行 大運之將泰兮
봉신명이개성 차호 주인경수경수
奉新命而改成 嗟乎 主人敬受敬受

아하!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도여,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
도 있도다. 경신년(1860)에 포덕함이여, 어찌 운이 아니며
어찌 명이 아닌가. 갑자년(1864)에 당한 일이여, 이 또한 운
이고 이 또한 명이로다. 주인의 일심이여, 처음부터 끝마칠
때까지로다. 두 글자[天主]를 보고 지목함이여, 어찌 서양
사람이 먼저 행한 것인가. 대운이 장차 큼이여, 새로운 명
을 받들어 고쳐 이루도다. 아! 슬프도다. 주인을 공경히 받
고 공경히 받으라.

* 【주】 최해월당의 강서를 부록으로 넣었다. 佛像之見
聖兮(불상지견성혜)라 한것 같이 수운교는 개교이후에
유·불·선의 교리와 佛天心(불천심)의 종지에 따라 동학
교단에서는 유일하게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민족종교 예술제



11월 3일(토) 오전 11시, 서울 소재한 동대문구체육관에서는 제16회 민족종교 전통예술제가 열렸다.

이번 예술제는 민족종교 협의회 12개 교단 소속 종교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심을 다지고 종교간 협치를 통해 민족종교가 나아갈 바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는 박우균 회장의 개식사와 천도교 이범창 총무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박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민족종교의 예술정신은 天地人의 조화와 상생과 평화에 있으며, 지난 상극의 묵은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고 新天, 新地, 新인의 개벽사상을 맞이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술제에는 수운교를 비롯하여 천도교, 원불교, 태극도, 선교 등 5개 교단이 참가하였다.

두 번째로 출연한 수운교의 ‘궁을바라춤’은 16명으로 구성된 바라팀(총지휘 김영호), 선도에 송선호 법사, 바라회장 조양선 등은 선관을 쓰고 선복을 입고 그 위에 천의가사를 걸치고 입장하였다. 법사가 징을 치고 “남문을 열고 바라를 추니 계명산천이 밝아오네 나무 아리마리불 제도 중생” 주문을 봉송하며 리듬에 맞추어 바라춤을 추며 입장할때 박수가 나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교단별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화합의 놀이마당이 펼쳐졌다.



전통웃놀이 (국내 · 외에서 열려)



“웃이야” 전통놀이 즐기며 로스엔젤레스에서 겨레얼 꽃피다.

10월 13일 사단법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박성기)가 주최하고 미주 본부를 맡고 있는 화랑청소년재단의 주관으로 팬퍼시픽 공원에서 연 ‘겨레얼 강연 및 한미화합의 한마당’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한국 전통놀이인 웃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를 체험하였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달빛광장에서 “얼췌 한마당” 웃놀이 대회가 열려 수운교 교인들도 동참하여 전통웃놀이 문화를 꽃피웠다.

법사회의



11월 11일 법사 회의가 복지관에서 김석주 법사 원장을 비롯한 법사들이 참석하여 제95주년 수운교 개교 기념 준비와 기해년 새해 예산을 심의하였다.

개교 기념 준비는 총무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예산(안)은 법사들이 총무원에서 제출된 초안을

좀 더 살펴본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

여성회와 청장년회 합동연수



봉령군대인 박신규 부총무원장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민족종교 여성회와 청장년회 임직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92명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연수를 하였다.

이날 수운교에서는 김은택 부녀회장과 박신규 부총무원장 등 11명이 동참한 가운데 10일 새벽 4시에 새벽공기를 마시며 울진군 후포항으로 출발하였다. 오전 10시 배멀미 약을 미리 먹고 배에 승선하였다. 그런데도 파도가 있어서인지 속이 울렁거렸다. 몽롱한 가운데 넘실



거리는 파도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육지의 먼 산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가다보니 배는 울릉도 사동항에 12시 40분에 도착하여 여객선 터미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곧바로 독도를 탐방하기 위해 배에 올랐다. 배는 독도까지는 무난히 도착하였으나 넘실거리는 파도 때문에 독도에 내릴 수가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

뜻 깊은 독도탐방이라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추억의 인증사진을 찍었다. 독도에 갈 때에는 조용하던 파도가 우리가 떠남을 아쉬워하듯 거센 물결로 앞을 가리어 배가 요동을 치어 배 멀미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울릉도에 도착하여 이번 연수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박차귀 여성회장의 인사와 박종도 청장년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민족종교 임원인 오창운 수운교 교무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방의 해 뜨는 나라 그 중에서도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해바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연수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 민족종교는 각 종단의 명칭과 의식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같을 수 있다며 다름도 아름답다는 인식으로 서로 화합하여 일가 동락하는 도덕세계의 지상천국을 건설하자”고 강조하였다.

11일은 도동항 근처의 섬백리향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울릉도를 일주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거북바위 앞에서 사진을 찍고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를 관람하였는데 향나무가 흙도 없고 물도 없는 바위 위에서 모진 풍파를 견디며 자라고 있어 새삼 끈질긴 생명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관광버스는 서면을 지나 북면의 코끼리바위가 보이는 울릉예림원을 관람하였다. 예림원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작은 식물원이다. 예림원 관람을 마치고 꼬불꼬불 산길을 넘어 나리분지에 도착하였다. 나리분지는 “동서 약 1.5km 남북 약 2km 울릉도 유일한 평지로 성인봉의 북쪽의 칼데라화구가 함몰하여 형성된 화구원이다.

현재 울릉도는 섬전체를 일주할 수가 없다. 울릉도 저동항과 북면을 있는 약 4km 구간엔 도로가 없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내년도에 울릉도를 방문하면 섬전체를 일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저동항에서 봉래폭포까지 약 800m는 걸어서 올라 갔다. 봉래폭포 3단 폭포로 그렇게 높고 큰 폭포는 아니지만 1일 유량 3,000톤을 자랑하는 울릉도 남부 일대의 중요한 생활식수원이다.

봉래폭포 관광을 마치고 청포구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 종단 대표들의 인사가 있었다.

12일에는 우리 수운교 참가자 11명은 울릉도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전망대에 올라 저멀리 독도를 바라보며 독도에 내리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이어서 울릉도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울릉도를 떠나면서 파도가 심하여 독도에 하선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연수 일정을 마쳤다.



동정

☘ 수강 198(2019)년도 기해년 달력



수운강생 198 (2019)년도 기해년 달력을 각 지부와 개인에게 배부하였다. 신년도 달력은 예년과 같이 13장 14쪽으로 편성하였다. 뒷면에는 기해년 연

령조건표를 수록하여 나이에 맞는 띠와 수강연도를 기록하고 삼재명 등을 등재하였다. 일자 아래에는 공간을 두어 가정이나 개인의 일과를 기록하도록 편재하였다. 달력은 사계절 꽃 피고 새 우는 금병산하 청정용호도량 도솔천과 봉령각, 법회당, 사무실, 용호당을 중심으로 지난 해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담았다.

☘ 불기 세척

11월 17일(음 10. 10)과 18일 개교기념법회를 앞두고 김은택 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박남형 신도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 명은 도솔천과 봉령각, 법회당 등 삼단의 불기를 깨끗이 닦았다. 불기는 닦으면 광채가 나고 깨끗해져 기념법회를 봉행하기 위하여 연례행사로 부녀회와 신도회에서 주관하여 세척하고 있다.

11월 22일과 23일 개교기념일과 위령재에 불천사(佛天師)님께 공양 올리고 오시는 신도(동덕)님들과 내외 손님들에게는 공양을 보시하기 위하여 김치를 담고 공양물을 준비하는 등 부녀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오간다.

이날 손만순 회원이 집에서 재배한 무 100포기를 보시하는 등 회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교단 발전을 위하여 기도수행하며 행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 도량정화 활동



11월 11일과 18일 수운교 신도회와 금병봉사단에서는 개교기념법회 준비와 겨울철 도량정화를 위하여 도솔천, 봉령각, 법회당 장실 등에 지난 무더웠던 여름에 쌓이고 낙엽지고 떨어진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등 봉사 활동을 하였다.

☘ 영농활동

10월 16일부터 수운교 금병봉사단과 신도회 회원들은 법회당 뒤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

매년 선성당(先聖堂) 부지 주변 이천여 평의 밭에서 임직원과 교인들이 들깨, 고구마, 가지, 호박,

무와 배추 등 많은 농작물을 무공해로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영농활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것이 마치 자식을 교육하고 기르는 것과 같이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으며 여름내 구슬땀을 흘렸다.



☘ 개천절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염원



해마다 10월 3일이 되면 전국에서 개천절 행사가 거행된다. 올해는 단기 4351년이다. 단군왕검이 나라를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었음을 뜻한다. 서울 광화문광장, 보신각 주변, 서울 사직공원 단군성전,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등에서 각 단체별로 거행했다.

또 서울 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는 이날엔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천절 경축식’이 거행되었다. 개천절 소개영상으로 시작되는 경축식은 개식선언, 국민의례, 개국기원소개,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본부 김덕환 총무원장을 비롯한 민족종교계, 민족운동, 독립운동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간인 주도의 개천절 행사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사)국학원,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기념식 분위기를 한결 북돋아 주었다.

☘ 도솔천 단청견학



9월 11일 단청을 공부하고 있는 단청전문가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도솔천을 참배하고 도솔천의 단청을

문화재로 등재하여 관리 보전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 유아들의 꿈!



도솔천 청정용호 도량에서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꿈의 나라를 펼치고 있다. 요즘은 많은 유아들과 어린이들이 수운교 청정도량을 찾아 정서함양과 건강을 다지고 있다.

☘ 삼왕기도



11월 30일 오후 3시 법회당 장실 부엌에서 김덕환 총무원장을 비롯한 교인들이 참석하여 조왕 기도를 봉행하였다.

11월 10일 오후 3시 법회당 장실 우물에서 용왕 기도를 봉행하였다.

11월 13일 오후 3시 금병산 산재단에서 100여명의 교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교인들의 무병장수와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모든 일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산왕기도를 봉행하였다.



☘ 녹두 전봉준 장군 동상



동학혁명 정신을 기리며 부패한 권력과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혼을 일깨워준 녹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세웠다.

동정

예술제에 참가하며!



제주도 신천지부
학선군부인 유정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2박 3일간 일상에서 벗어나 수운교 본부에게 되었다. 도착해보니 울긋불긋 금병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본부궁내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과 단풍들이 알록달록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에 지치고 힘든 마음이 모두 한꺼번에 녹아들었다. 청정용호도량을 바라보며 시원한 마음과 대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며 도솔천, 봉령각, 법회당을차례로 참배하고 복지관 숙소에 짐을 풀었다. 오후에는 새로 만들어진 바라춤 요잡바라 궁을바라춤 연습을 하면서

본부 바라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했는지 엿볼 수가 있었다.

어디에서 나오는 기운인지 바라춤 연습하는 모습은 모두가 한결같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증명이라도 하듯 절로 어깨에는 힘이 솟고 다리는 사뽀사뽀 일심동체가 되었다. 믿음에서 나타나니 이 또한 지극한 신앙정신이 아닐는지!...

드디어 공연 날 새벽예불에 불천사(佛天師)님께 심고를 발원하고 모두들 밝은 모습으로 버스에 올라 이동하는 동안 의전부장님께서 좋은 법문과 격려로 시작하여 송선호 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한 분 한 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각자 소개와 인사를 하고 염불소리를 들으며 서울에 도착하였다. 수운교의 신앙 정신을 갖고 성경신으로 마음자리에 담아놓고 두 번째로 공연하였다.

바쁘게 준비하고 선관 선복 천의가사를 입고(정재하고) 바라를 들고 입장을 하였다. 서로를 격려하며 “남문을 열고 바라를 추니 계명산천이 밝아오네 아리따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송선호 법사의 리드에 따라 포덕기를 부르며 징소리 맞추어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모두들 몸을 움직이는 기운이 모두 합해지면서 한 몸을 이루듯 공연장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나에게 주어진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이 되라 우리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다하면 우리가 서있는 그 자리는 진실하다는 글이 있다. 우리 바라회원들은 멋진 공연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모든 분들께 참된 모습을 보여준 수운교 바라회원들이었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공연에 동참하게 된 저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가끔씩 마음을 닦고 단련시켜서 한 번씩 뒤 돌이켜보고 진실한 삶을 살며 자기 본심의 주체로 사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심정기(守心正氣)로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행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수고하신 송선호 화순지부 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바라춤 구상하느라 수고하신 금호자 이경화님! 바라회원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곱게 잘 이끌어 주신 조양선 회장님, 정인순 교화 부장님과 동참하신 모든 동덕님들께 이글로써 감사함을 전하며 큰 박수와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운교 전통 궁을바라를 잘 발전시켜 계승승후손들에게 잘 이어져 나아가길 기원하며!

수운교 청정봉사단



수운교청정봉사단(단장 김옥산)에서는 수운강생 197년 9월 14일 단원 10명이 제주한라체육관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된 제주시 한마음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교통 봉사 활동을 하였다.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2일간 제주시 봉개동에서 개최하는 오름축제장에서 단원 57명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나눔장터를 운영했으며,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연인원 26명이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된 PGA투어더 CJ컵골프대회 행사장에서 주차관리를 하였다. 10월 18일에는 외도일동에서 청소년 공부

방 꾸미기 봉사활동을 하였고, 11월 17일 단원 28명이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서 봉개지부가 개최한 경노잔치 행사장에서 노력봉사를 하였다.

12월 2일 봉개지부에서 청정봉사단원 60여명은 사랑의 김치나눔장터를 열고 배추 4,000포기를 담아 이웃에 나누어 주는 등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다.

매주 수요일 제주시 노인복지관에서 200인분 분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12분에게 반찬배달 등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인여천의 수운사상을 실천하며 수운교를 널리 포덕하고 있다.



삶이 행복인 것을!..

사람은 누구나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에 왔다. 사람으로 왔으니 행복한 것을!

행복과 불행이 내 마음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못하며 산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 좋게 먹는 사람과 기분 나쁘게 먹는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게겐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에게 불행이 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 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두발로 걸을 수 있으니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계·지·관

하반기 법회안내

〈문의 ☎ (042) 861-1771〉

● 초하루,보름기도	매월 음 1일,15일	오전 7시20분	3 단
● 백일기도치성	매월 음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수련기도	매월 음 1일~7일	오후 2시	봉령각
● 법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동지	양 12월 22일	오전 7시 23분	법회당
● 해맞이	양 1월 1일	오전 6시	금병산
● 인등종공	음 12월 10일	오전 10시	봉령각
● 입춘	양 2월 4일	정오 12시 14분	법회당
● 조왕재일	음 12월 30일	오후 3시	장 실
● 설 날 (무술)	음 정월 초하루		3 단
● 용왕재일	음 정월 3일	오후 3시	장 실
● 산왕재일	음 정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정월수련	음 정월 7일	오후 2시 (7일간)	법회당
● 인등기도입재	음 정월 10일	오전 10시	봉령각
● 위령재일	양 3월 1일	오전 10시	법회당
● 성덕군탄일	음 정월 15일		
● 신장재일	음 2월 7일	오후 3시	광덕문

공 · 기도비를 납부합시다

공·기도비(7만원)는 수운교 교헌에 의하여 매년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1년에 봄과 가을에 두번)에 납부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문의 ☎(042) 861-1771〉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새마을금고 9002-1796-7840-6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지부에 납부바랍니다.

장학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장학성금은 수운교인 또는 수운교와 인연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금입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453116-51-073795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포덕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포덕성금은 3대원(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성취를 위해 교화사업을 하기 위한 성금입니다. 3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농협 453116-51-062203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봉령군대인 윤병갑(子 윤일재)
학선군부인 김연자(夫 양석관)
광산유인 김용강(子 정원진)

봉령군대인 윤장규(子 윤영진)
학선군부인 양순옥(子 문충식)

쾌척 성금

▶ 현금회사

- 100만원 이상 : 최영례, 최성수, 나준섭, 최현두, 익명(산왕재) 익명(선성당 건립기금)
- 50만원 이상 : 최현규, 김명호, 김은택, 장시운, 오경순
- 30만원 이상 : 이영주, 김진중, 이현중
- 20만원 이상 : 강유진, 김기영, 최춘자, 조근환, 조종심
- 10만원 이상 : 김영호(제주), 박복희(제주), 윤광오(대구), 이광수 김광남, 박종락, 박기중, 안상원, 탁선홍

▶ 물품회사

- 김창범(넘버원농장), 대성건업(봉개), 오동구(홍로), 김성균(용흥), 김태운(부여), 강순애(화순), 이장성, 최춘자, 이경례, 민승순, 이미경, 이유정, 김태열, 백용란, 오영순, 윤옥희, 안정숙 유희자, 정팔순, 손만순, 조양선, 장시운, 백국부, 익명

▶ 화환 화분

- 한국민족종교 박우균 회장, 신도회 박남형 회장의 회원일동, 부녀회 김은택회장 외 회원일동, 재단법인 정기중 이사장 외 임원일동, 금병봉사단 정기백 단장 외 단원일동, 수운교청정봉사단 김옥산 단장 외 단원일동, 봉개지부 국민건강원 한영무·고순이, 화성건기 박성철·전연숙, 우성유통 김희선·박은희, 나리목장 강훈표·고양선 화진건설 김창도·김성진,한일공업사김철현,대성건업고용혁·한경숙,용호회 김수만 회장 외 회원일동

아미타불 개금불사

※ 개금불사에 동참하고 계신분들의 박명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현재 본부사무실에서 접수 받고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해맞이

기해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새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 ▶ 일시 : 수강 198년(2019) 1월 1일(음 11. 26) 화요일 오전 6시 복지관에서 출발
-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금병산 운수봉
- ▶ 주관 : 수운교 본부 신도회